

辨리사와 辯호사(2)

2.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 변리사와 변호사

백과사전에서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는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변리사법 2조, 2004. 12. 31. 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변호사(辯護士, lawyer)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다소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포괄적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현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부여(?) 받고 있다.

여기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한자를 비교해보면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글로는 같은 ‘변’자가 한자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이는 네이버 사전 검색에서 발췌했습니다.)

먼저, 변리사에서 변은 분별한 변으로 말다툼하여 옳은지 그른지를 정한다는 뜻으로 辛자 사이에 刀자 사이에 끼어있어서 마치 칼로 자르듯이 명백히 나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혼음 : 분별할 변, 갓출 판, 두루 편 + 단어장에 추가

사성음 : biàn

부수 : 辛 (매출신 部)

획수 : 16 (부수획수:7)

난이도 : 고등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3급 (쓰기 : 2급)

뜻풀이 : ㉠분별하다
㉡나누다
㉢밝히다
㉣정론하다
㉤분별
㉥구별
㉦변화
㉧갓추다 (판)
㉨두루 (편)

약자, 속자
弁
간체자(簡體字)
辨

형성문자
선칼도방(利(=刀)→칼, 베다, 자르다)部(날붙이→나누는 일)과 음(音)을 나타내는 辛+辛(변→재판하는 일)으로 이루어짐. 말다툼하여 옳은지 그른지를 정하다→나누다→明白(명백)히 할

변호사의 변자는 말씀변으로 주로 말을 잘하여서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라고 나타나 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와 변호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간글자 '理'와 '護'의 차이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변(辨, 辯)자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다름을 한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c)1998 OpenMind

PLAY STOP

약자, 속자
弁

간체자(簡體字)
辩

훈음 : 말씀 변, 고를 평, 두루미칠 편 + 단어장에 추가

사성음 : biàn

부수 : 辛 (매울신 部)

획수 : 21 (부수획수:7)

난이도 : 고등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4급 (쓰기 : 3급)

뜻풀이 :

- ㉠말씀
- ㉡문제
- ㉢말을 잘하다
- ㉣다루다
- ㉤논쟁하다
- ㉥나누다
- ㉦고르다(平) (평)
- ㉧두루 미치다 (편)

유의자 : 詒 談 辭 言 話 說

형성문자
 言(인⇒말)과 音(음)을 나타내는 辛+ 辛(변)으로 이루어짐. 본디는 辨(변)과 마찬가지로였으나 辯(변)은 구별하여 정하는 것을 辯(변)은 주로 말을 잘하는 것을 나타냄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앞서서 언급한 내용이 정설(?) 이라고 할수는 없다. 하지만, 한자를 살펴보면 변리사와 변호사의 구분이 명확해짐은 부인할 수 없는 듯하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잘할 수 있을 가? 물론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기술의 사이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끝.